

교육실습 소감문

1) 교생실습나간 학교, 실습기간

- 서울문화고등학교 (서울 도봉구 소재), 2016. 5. 2 ~ 27(4주간).

서울문화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1983년 「도봉상업고등학교」로 설립 되었다가 1997년 「도봉정보산업 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09년 다시 교명을 「서울문화고등학교」로 변경하였다. 문화산업경영과, 디지털문화컨텐츠과, 문화컨텐츠디자인과, 연예매니지먼트과의 4개의 과가 있으며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하나의 과를 선택해 해당과에 특화된 교육을 받는다.

2) 담당학급과 그 학급에서 맡았던 일들, 학생과 활동했던 일들

- 디지털문화컨텐츠과 2학년 4반 학급. 학급에 배정 받고 난 첫 주부터 수업을 제외한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던 업무의 전부를 일임 받았다. 아침에 출근해서 portal에 올라온 각종 전달사항들을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했고, 지각자에 한해 방과 후 시간에 청소와 30분의 자습을 관리·감독했다. 조·종례는 물론 카카오톡 단체 특방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도하였다. 매일 몇몇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컴퓨터 학습에 열의를 보이는 몇몇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축제 때는 함께 춤을 연습하여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다.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견과와 함께 편지를 선물하였고,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반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 편지와 함께 빼빼로를 선물하였다.



3) 가르쳤던 과목과 교육 현장에서 수업한 내용들

- 2과목 : 컴퓨터 일반(주 6시간), 컴퓨터 그래픽(주 10시간)

컴퓨터 일반 과목 : 컴퓨터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수의 체계를 중심으로 수업하였다. 수의 체계와 진법 부분에서는 진법변환에 대한 문제풀이를 위주로 수업하였고, 컴퓨터의 연산 부분에서는 2진수의 연산을 중점적으로 수업하였다. 진법 변환 파트에서는 2진수를 활용한 심리마술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수행평가 문제를 출제하여 형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컴퓨터 그래픽 : 디지털문화컨텐츠과 2학년 학생들 모두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GTQ 2급 자격증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5월 교육 실습기간 동안 GTQ 2급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담임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유인물을 통해 파트별로 실습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제작하여 90분의 시간을 주고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게 했다. 모의고사 이전에는 어려운 툴이나 효과 사용을 가이드 해주고, 모의고사 시에는 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 도와주었다.

4) 교과수업에 대한 고찰

-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낮고, 학습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알려줌으로써 학습에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예를 들어 2진수를 가르칠 때, 5를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고, 나는 그 학생들이 당황하거나 창피해하지 않도록 면대면으로 찾아가 나눗셈부터 순차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학생들을 끌고 가겠다는 욕심 때문에 많은 진도를 나가지는 못했다. 또,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채점을 했지만 담임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점수로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한편,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을 봐주기는 쉽지 않았는데, 학습자들의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동료 학습을 독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학습자의 참여 또한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5) 학생들과의 관계

- 실습을 진행한 두 번째 주부터 나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 양식을 나눠주고, 그를 토대로 매일 점심시간에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나는 교생으로서 선생님의 신분이면서도 대학교에서는 나 역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임을 알리고,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재미있는 생각들 모두를 함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상담시간에 나에게 진로 및 생활 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먼저 다가와 사소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때문에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담임선생님께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시는 우리 반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나

로부터 듣기도 하셨다. 한 번은, 웹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어 퇴근 후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고 공부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고 틈틈이 그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해주었다. 또, 나는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춤 연습을 하고 체육대회 때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며 서로 가까워 질 수 있었다.

☺ 나를 소개합니다 ☺

1. 내 이름은 ()입니다.
2. 나는 미래에 ()가 되고 싶다.
3. 나는 ()할 때 행복하다.
4. 나는 ()을(를) 좋아한다/잘한다.
5. 나는 연예인/가수/운동선수/배우 등 ()를 좋아한다.
6. 내 취미는 ()이다.
7. 나의 별명은 ()이다.
8. 나의 매력 포인트는 ()이다.
9. 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ex) 백종원의 3대천왕에 나온 맛집 방문하기, 반삭해보기, 꽃꽂이배우기
 - ①
 - ②
 - ③
- *버킷리스트: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10. 교생샘에게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 등 (한마디라도 꼭 써주기!)

상담에 활용한 자기소개 양식

6) 교생 실습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짧았다. 교생을 발령받은 첫 번째 주에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또, 어린이날과 개교기념일, 예비군 훈련과 면접 등으로 학교에 빠지는 날이 많았다. 시간이 짧았던 만큼 더욱 열심히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교생 선생님이 없었던 1학년 9반 학생들에게도 내가 교생을 해주기로 자처했는데 그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다.



7) 교생 실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 수업 준비가 가장 어려웠다. 무엇보다 시간적인 압박이 심했다. 수업을 마치고 수업일지를 쓴 뒤 하루를 정리하며 퇴근을 하고 나서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포토샵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에 포토샵을 숙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다든지 수업에 사용할 PPT 자료나 유인물을 만들고 복사를 하는 것 등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욱이, 수업이 워낙 많다보니 수업자료를 거의 매일 같이 밤늦으로 준비해야 했다.

8) 교생 실습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일

- 마음의 벽을 세웠던 학생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준 것. 마음이 상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열린 자세로 기다리니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 고작 한 달 남짓 선생님의 신분으로 지내는 내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지도 모르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몸과 마음가짐에 신경을 썼다. 교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9) 학교와 현장 실습에서 느낀 학교란?

- 교육 실습을 하기 전에는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번 교생 실습을 하며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자라났다. 학교가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를 다지기 보다는 이익관계에 얽힌 '공무기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업을 준비하기 보다는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을 '업무형 교사'로 자칭하는 교사도 있었다.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교사에 대한 꿈을 포기한 나로서는 그러한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불쾌했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고,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교직에 임하는 교사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실습을 하며 보고 느낀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을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교장, 교감, 장학사 등 자신의 출세를 위한 계획적인 행동들에 집중한다거나 경제적인 논리로 현상을 바라보며 돈과 관련된 일들에 혈안이 된 사

람들이 많았다. 일례로, 교생이 실습 학교에 내는 실습비 10만원을 가지고 몇몇 선생님들은 “언제 적 10만원이나”, “너무 적다” 등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의 지식은 교육의 본질이 도외시되는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의 질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10) 미래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생각

- 미래의 학교는 학생들의 행복을 생각해주는 곳이었으면 한다. 진학률과 취업률 등으로 학교와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의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해줄 수 있는 곳 말이다. 이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과도한 경쟁과 성적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 교사는 도덕성과 소명의식을 갖춰야 하면 좋겠다.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경제의 논리가 학교에서는 예외였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부터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안정된 수입과 연금을 위해 교사가 되려는 현 시대의 암울한 경제상황이 아쉽다. 사회의 일원인 교사 역시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는 오히려 그로부터 초연한 자세로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 정진해야 한다.

